

#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법적 다툼 재개

### 공익소송단 1심 판결 불복 제주지법에 항소장 제출 "환경영향평가서 멸종위기종 조사 누락은 법상 하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재개된다.

오등봉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이하 공익소송단)은 1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있다며 지난 5일 제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공익소송단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어류체색, 맹꽁이, 애기빨소뚝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분명한 법상 하자"라며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판단해 법리적 오류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된 주민대표를 누락했지만 재판부는 위법성 여부조차 판단하지 않고 제주시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2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22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보물섬 교육 공동체 관계자 등 284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 오등봉 76만 4863㎡ 공원 용도 부지 중 9만5080㎡(약 12%)에 1429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부지는 원래 목적대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지방채를 발행해 100%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제주시가 재정 부담이 크고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민간특례사업을 허용하자 난개발 논란과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결국 환경단체가 포함된 원고들은 "술한 논란에도 각종 심의를 이례적으로 단시간에 통과하는 등 절차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0월 이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무효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주장한 절차적 위반사항은 크게 5가지로 ▷민간특례 기준 미충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환경영향평가서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미비한 상태에서의 사업 승인 ▷환경영향평가 전문가에 대한 검토 의뢰 미이행 등이다.

반면 제주시 측은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이 환경영향평가법을 잘못 해석했고, 법을 어긴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팔색조와 애기빨소뚝구리, 팔색조 등 법정보호종 등의 환경 보전을 위한 준비도 충분하다"고 맞섰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6일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화물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제주지역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 "총력 투쟁"

### 민주노총 제주본부 결의대회

화물연대의 총파업 13일째를 맞아 제주지역에서 총파업·총력 투쟁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6일 제주시청 앞에서 화물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제주지역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 승리를 위해 힘차게 투쟁하자"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화물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때문에 상시적인 과로, 과적, 과속의 위험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노동자들은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형식적으로 협상 자리

에 한 번 나오고 시간만 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화물 기사의 자격을 박탈하고 다니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 시멘트 부분 강제노동을 명령하고 정유·철강 분야에도 발동 준비를 지시하는 등 안전 운임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진지한 협상 없이 노동자의 일방적인 굴복만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또 "안전 운임제 지속과 적용 대상 확대는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요구"라며 "민주노총 제주본부 1만3000조합원은 화주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도영기자



다가온 겨울... 시장엔 '김이 모락모락' 뿜는 겨울 날씨를 보인 6일 서귀포시 대정읍 오일시장 내 어묵과 육수 좌판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 손님들에게 온기를 전해주고 있다. 강희만기자

## 서귀포 소재 기도원에서 화재 건물 전소·사상자 3명 발생

서귀포시 소재 한 기도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이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냈다.

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7시43분쯤 상호동의한 기도원에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40대로 추정되는 1명이 숨지고 60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기도원 건물 66㎡(20평)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32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석유난로 취급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백금탁기자

## 서귀포 찾은 동계전지훈련 선수단 '담금질'

### 10종목·490팀·1만4770명 예약

'동계전지훈련의 메카'인 서귀포시를 찾은 선수단이 남국의 땅에서 본격적인 '담금질'에 나서고 있다.

6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2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3개월간 운영되는 동계전지훈련기간에는 지난 11월

말 기준 국내 프로축구팀인 포항스틸러스, 수원FC, 인천유나이티드 FC 등을 포함해 10개 종목, 490팀, 선수단 1만4770명이 등록신청을 마쳤다. 앞으로 농구(25팀), 테니스(20팀), 육상(30팀)이 추가로 신청할 예정이다. 이를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380억원으로 추산된다.

올 한해 시가 유치한 전지훈련팀은 27개 종목·776팀·2만3945명으로 지난해 26종목·443팀·1만1575명에 견줘 2배가량 규모가 늘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지난해 298억원보다 큰 617억원 규모다.

서귀포지역은 겨울철이지만 타 지역에 견줘 비교적 따뜻한 날씨와 전지훈련에 적합한 체육시설이 모여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인천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본선 진출을 노리며 서귀포에서 본격적인 전지훈련에 돌입한다.

시는 본격적인 전지훈련기간 운영에 앞서 사계절 전지훈련 유치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10월 한달간 전지훈련팀 유치에 나섰다. 신규 체육시설 확충은 물론 각종 훈련시설 보수·보강 등으로 훈련여건을 개선했고, 전지훈련팀 지원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있다. 백금탁기자

## 올해 우수 법관 김희진·김정숙·이동호 판사

제주지방법원 김희진·김정숙·이동호 부장판사가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에 선정됐으며 이들은 실제적 진심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줘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고압적인 말투 또는 반말투로 재판을 진행해 법정 인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법관도 있었다. 이상민기자

평가 결과 김희진·김정숙·이동호 부장판사가 '올해의 우수 및 친절 법관'에 선정됐으며 이들은 실제적 진심을 밝히기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고 설명을 잘 해줘 재판 문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단을 갖고 다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고압적인 말투 또는 반말투로 재판을 진행해 법정 인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법관도 있었다. 이상민기자

## 올 겨울, 따뜻한 혜택으로 노비타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플러스비데  
BD-AC50N



4만원 할인  
239,000원  
199,000원

#생활방수  
#어린이기능  
#자동노즐세척

3년무상A/S  
BD-AFE50N



7만원 할인  
299,000원  
229,000원

#생활방수  
#어린이기능  
#자동노즐세척

살균비데  
BD-H500E0



4만원 할인  
335,000원  
295,000원

#매일자동살균  
#미스트세정  
#자동노즐세척  
#강력방수

살균비데(리모컨)  
BD-H700H0



5만원 할인  
419,000원  
369,000원

#매일자동살균  
#세가지수류  
#3D무브  
#강력방수

2022.11.09 - 12.31

무료설치 | 에코백 증정 | 비데 필터 증정(2개)

인삼백화점

신광로터리

● 빙스

novita  
노비타 제주점

● 오양병원

신제주로터리

공항

마리나사거리

● 마리나호텔

구입문의 | 제주총판 및 A/S센터 064-758-0991  
 주소: 제주시 연삼로17



A KOHLER COMPANY